

간호대학생의 행복 인식과 학과만족도

권혁미¹, 한혜숙^{2*}

¹한국교통대학교 기획처, ²한국교통대학교 간호학과

Perception toward Happiness and Department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Hyuk-Mi Kwon¹, Hye-Sook Han^{2*}

¹Office of University Planning and Coordin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²Dept. of Nursing,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행복에 대한 주관성을 유형화하고, 그 유형별 특성에 따라 학과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주관성을 연구하는데 효과적인 Q방법론을 적용하였다. 대상자는 일 지역 간호학과 학생 64명으로 구성하였으며, Q표본 34개의 진술문을 가장 부정(-4)에서 가장 긍정(+4) 범위의 9점 척도 상에 분류하도록 하였다. Q분류된 자료는 QUANL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요인분석과 배리맥스 회전을 통해 요인분석이 수행되었다. 또한 학과만족도 자료는 27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으며,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4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전체 변량의 58.0%를 설명하였다. 제1유형은 진취적 자기 실현형, 제2유형은 고립적 몰입형, 제3유형은 낙관적 친화형, 제4유형은 자기중심적 관계 추구형으로 명명하였다. 간호대학생의 행복유형에 따른 학과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4.53, p=.006$). 즉, 진취적 자기 실현형이 고립적 몰입형에 비해서 학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학과만족도, 더 나아가 간호전문직관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유형들을 고려한 교육 및 상담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lassify the factors influencing nursing students' subjectivity toward happiness and to identify differences in department satisfaction according to happiness factors. Q-methodology, which is effective at studying human subjectivity, was employed. Sixty-four students were asked to sort the 34 Q-statements along a 9-point scale ranging from most disagree (-4) to most agree (+4). The Q-sorts were analyzed using pc-QUNAL program, which subjects the data to principle component factor analysis, followed by varimax rotation. Moreover,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a questionnaire that consisted of 27 questions pertaining to department satisfaction and analyzed using the SPSS 21.0 program. The result was classified into four factors that explained 58.0% of the total variance. Factor 1 was a progressive self-realization type, factor 2 an isolated flow type, factor 3 an optimistic friendly type, and factor 4 a self-centered relationship seeking type. Moreover,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department satisfaction according to happiness factors ($F=4.53, p=.006$). To enhance department satisfac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education and counseling in consideration of these types are needed.

Keywords : Happiness, Methodology, Nursing Students, Perception, Satisfaction

*Corresponding Author : Hye-Sook Han(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Tel: +82-43-820-5183 email: hshan@ut.ac.kr

Received October 16, 2017

Accepted January 5, 2018

Revised (1st November 6, 2017, 2nd November 27, 2017)

Published January 31, 2018

1. 서론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 중 주관적 행복감이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5위의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규모를 차지하고, G20에 드는 국가이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대단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 수준이 낮게 나타난 결과는 경제적 풍요와 객관적인 삶의 조건이 높아진다고 하여 반드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행복수준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주관적 행복감의 정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을 때 조금미와 박현숙[2]의 연구에서는 70.9점, 박혜숙[3]의 연구에서는 68.1점, 김경희와 김계하[4]의 연구에서 68.0점으로, OECD 평균(100점)과 비교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를 점수화한 82점[1] 보다 높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많은 연구에서 행복한 사람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증진 및 인간관계 형성과 같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직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생 자신의 주관적 행복감의 수준이 낮을 때 전공에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옴[5]과 동시에 간호전문직관[6]과 직업 존중감[7]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즉 간호대학생들이 전공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향후 간호사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념과 태도형성에 장애를 가져옴으로서 자신의 직업에 대한 혼란과 부정적 시각으로 이어져 결국 긍정적인 전문직관이나 자아개념 형성을 방해하고[8], 이러한 결과는 나아가 졸업 후 간호사의 전문직 역할 수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활을 통해 인생의 장기적인 행복 추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대학생들은 자아정체감 확립과 삶의 가치관 정립이란 발달과제를 성취해 나가야 하며,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고 개척해 나가는 결정적인 시기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주역인 대학생의 행복 수준은 한 개인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대학, 사회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시기이기도 하다.

전통적으로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행복과 관련하여 개인마다 고유한 설정치(set point)가 존재하여 변화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우세하였으나, 최근에는 긍정심리학에

의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 밝혀짐에 따라, 노력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주장이 우세하다[9]. 역시 Lyubomirsky[10]에 따르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 중에서 개인이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고유한 특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간호대학생의 행복 경험과 행복에 관한 교육 및 상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순, 유경원과 김혜숙[11]은 간호대학생에게 셀프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을 2일 동안 총 18시간을 제공한 결과 행복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되었음을 보고하였고, 조금미[12]는 ‘행복한 나 되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간호대학생에게 주 3회씩 4주를 실시한 결과 주관적 행복감이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행복 향상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도 의미는 있지만 이러한 객관적인 지표로만으로 행복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행복은 자신의 존재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하고,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추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추구되는 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13] 행복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주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Q방법론을 통해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계화[14]는 행복에 관한 주관성을 측정하여 인식유형을 파악하고 유형의 특성을 설명한 연구를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의 행복에 대한 인식 유형의 발견뿐 아니라 학과만족도를 조사하여 주관적 행복감의 유형이 학과만족도와 관련이 있는지 분석해 봄으로써 행복감의 증진 방안을 모색하려는 시도이며, 방법론적으로는 가설 발견의 논리(abduction)로 시작하여 귀납적 방법으로 효용성을 확인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는 Q 방법론을 이용하여 간호대학생의 행복에 대한 주관적 구조와 특성을 확인하고 학과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삶과 행복을 통해 긍정적 시각이 길러지도록 인성교육 및 대학생활 상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행복을 유형화한다.
- (2) 간호대학생의 행복유형에 따른 학과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행복에 대한 주관성을 유형화하고, 간호대학생의 행복유형에 따라 학과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시도된 탐색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도구

2.2.1 학과만족도

학과만족도는 Brakamp, Wise와 Hengstler가 개발한 도구를 김계현과 하혜숙[15]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교과만족, 관계만족, 일반만족, 학과인식만족, 학교인식만족의 5가지 만족요인, 2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학과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계현과 하혜숙[15]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계수(Chronbach's α)는 .92였고, 본 연구에서의 Chronbach's α 는 .93이었다.

2.3 Q 모집단과 Q 표본의 선정

Q 모집단은 첫째, 관련 문헌[9,16-19]을 통해 진술문을 수집하였다. 둘째, 간호대학생 3명과 일반인 3명을 대상으로 “본인에게 행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할 때 행복하다고 느끼나요?” “행복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등의 질문으로 심층면담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주관적 의견들로 구성된 총 179개의 진술문을 확보하였다.

Q 표본을 선정하기 위하여, 일단 Q 모집단에 포함된 진술문을 여러 번 반복하여 읽으면서 유사한 진술문을 가진 것끼리 분류하고, 그 주제에 관해 대표성이 크다고 생각되는 진술문 37개를 임의로 추출하였다. 이 진술문 내용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질적 연구 혹은 주관성

연구 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교수 3인의 검토와 수정을 거쳐 최종 34개의 Q 표본을 선정하였다.

2.4 P 표본

본 연구에서는 일 지역 간호학과 학생 중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64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는 연구 목적과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응답내용은 연구이외의 목적으로 절대로 사용하지 않음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G*power 3.1.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행복유형에 따른 학과만족도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효과 크기를 산정한 결과 0.48이었으며, 표본 수 64명은 유의 수준 5%에서 88.8%의 검정력을 보였다.

2.5 Q 표본 분류

Q 표본으로 선정된 진술문이 적힌 34개의 카드를 P 표본이 읽은 후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가장 동의하지 않는 것(-4)에서부터 중립(0), 가장 동의하는 것(+4)으로 9점 척도 상에 강제 분포하도록 하였다 (Table 1). Q 분류 직후 양 극단(+4, -4)에 분류한 진술문에 대해서는 선택 이유도 함께 수집하여 요인을 해석하는데 활용하였다. 그리고 동봉된 학과만족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2.6 자료 분석방법

Q 분류된 자료는 가장 불일치하는 경우에 1점에서부터 가장 일치하는 9점까지 점수화하여 QUANL PC program을 이용하여 주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가장 이상적인 요인수를 결정하기 위해 아이겐 값 1.0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요

Table 1. Distribution of Q-sample card

Score	Disagree				Neutral	Agree			
	-4	-3	-2	-1		1	2	3	4
no. of card	2	3	4	5	6	5	4	3	2

Table 2. Eigen values and Variances

Categories	Type I	Type II	Type III	Type IV
eigen value	25.96	5.86	3.15	2.12
Variance(%)	40.56	9.16	4.92	3.31
cumulative variance	40.56	49.72	54.64	57.96

인 수를 다양하게 입력시켜 산출된 결과 중 이상적이라고 판단되는 유형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행복유형에 따른 학과만족도의 차이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과 이에 따른 Scheffe 다중비교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Q 유형의 형성

간호대학생들이 행복에 대해 가지고 있는 주관성의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Q 요인분석을 한 결과 4개의 유형(factor)으로 나타났다. 제1유형은 진취적 자기실현형, 제2유형은 도피형 몰입형, 제3유형은 낙관적 친화형, 그리고 제4유형은 자기중심적 관계 추구형으로 명명하였다.

각 유형별 아이겐 값은 25.96, 5.86, 3.15, 2.12로 나타났다으며, 총 변량은 0.5796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4개의 유형이 약 58.0%의 설명력을 지닌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Table 2).

유형별 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성과 요인가중치(factor weight)는 Table 3과 같다. 각 유형에서 요인가중치가 높은 사람(1.000 이상)일수록 그 요인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해당요인의 특성을 가장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연구대상자 64명 가운데 제1유형에 21명, 제2유형 11명, 제3유형 22명, 제4유형 10명으로 분류되었다.

3.2 유형별 특성

간호대학생의 행복에 대한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2.1 제1유형: 진취적 자기실현형

제1유형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목표 성취를 통해 개인적 성장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인생에 대해 특별히 의미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며(#27, $z=-1.66$) 삶을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으로 생각한다(#26, $z=1.39$). 이런 과정을 통해 삶이 매우 보람이 있다고 느끼며(#11, $z=1.03$) 감사할 일들이 매우 많다고 생각한다(#33, $z=1.50$). 또한 자신이 해 내야 할 일들은 스스로 헤낼 수 있다(#28, $z=1.13$)는 자율적 태도를 중시한다.

Table 3. Demographic Characteristic and Factor Weight for P-sample (N=64)

Type	ID	Factor Weight	Gender	Having religion	Satisfaction with pocket money	Subjective health status
Type I (n=21)	11	0.89	Female	Yes	Good	Fair
	18	2.79	Female	No	Good	Good
	19	1.66	Female	No	Good	Fair
	21	1.50	Female	No	Good	Fair
	22	1.08	Female	Yes	Good	Fair
	24	1.14	Female	No	Good	Good
	25	0.86	Female	No	Good	Good
	26	0.66	Female	Yes	Good	Good
	27	0.91	Female	No	Good	Good
	29	1.68	Female	Yes	Not good	Good
	30	1.21	Female	Yes	Good	Good
	33	0.89	Female	No	Not good	Good
	37	0.60	Female	No	Good	Fair
	42	0.92	Female	Yes	Good	Fair
	43	0.95	Female	No	Good	Fair
	45	1.14	Female	No	Good	Good
	47	0.88	Female	No	Good	Good
	48	0.74	Female	No	Good	Fair
	52	1.28	Female	Yes	Good	Good
	53	1.25	Female	No	Good	Good
	61	0.73	Female	No	Good	Good
Type II (n=11)	1	0.80	Female	No	Not good	Not good
	2	1.02	Female	No	Not good	Fair
	4	1.04	Female	No	Not good	Good
	6	0.58	Female	No	Not good	Fair
	7	0.61	Female	No	Not good	Not good
	10	1.03	Female	Yes	Not good	Not good
	12	0.43	Female	No	Not good	Not good
	36	1.03	Female	No	Not good	Fair
	39	0.85	Female	Yes	good	Good
	44	0.42	Female	Yes	good	Fair
	57	1.30	Female	No	Not good	Not good
Type III (n=22)	3	0.82	Female	No	Not good	Good
	8	0.78	Female	Yes	good	Not good
	14	1.00	Female	Yes	good	Fair
	17	0.20	Male	No	good	Good
	20	0.62	Male	Yes	good	Good
	23	1.13	Female	Yes	Not good	Fair
	28	2.84	Female	No	Good	Fair
	31	1.31	Female	No	Not good	Good
	32	1.18	Female	No	Not good	Fair
	34	1.31	Male	No	Good	Fair
	35	0.89	Female	Yes	Good	Fair
	40	1.09	Female	No	Good	Fair
	46	0.59	Female	Yes	Good	Good
	49	1.02	Female	No	Good	Good
50	0.87	Female	Yes	Good	Good	
51	1.73	Female	No	Not good	Fair	
54	1.09	Female	No	Good	Good	
59	0.31	Female	No	Not good	Fair	
60	1.83	Female	Yes	Good	Good	
62	0.90	Female	Yes	Good	Good	
63	1.45	Female	No	Not good	Good	
64	0.70	Female	No	Good	Good	
Type IV (n=10)	5	0.71	Female	No	Good	Good
	9	0.45	Female	No	Good	Not good
	13	1.17	Female	Yes	Not good	Good
	15	0.69	Female	No	Not good	Fair
	16	1.03	Male	No	Good	Good
	38	0.60	Female	No	Good	Fair
	41	0.85	Female	No	Good	Good
	55	0.84	Female	No	Not good	Good
	56	0.63	Female	Yes	Good	Fair
	58	0.91	Female	No	Good	Good

Table 4. Descending Array of Z-score and Item Descriptions for Each Type

Type	Item No	Q-Statement	Z-score
Type I	*33	There are so many things to thank for my life.	1.50
	26	For me, life is a process of constantly learning, changing and growing.	1.39
	17	I love someone or I am loved by someone.	1.39
	14	I live happily with my parents.	1.37
	7	Happiness for me is not a grandiose thing, just a little joy from day to day.	1.29
	28	I can do things that I have to do on my own.	1.13
	*11	I feel life is very rewarding.	1.03
	10	I don't feel lonely at all.	-1.08
	21	I'm not pleasant when I'm with others.	-1.23
	3	I like every aspect of my personality.	-1.32
	24	I won't have much to laugh about.	-1.41
	34	I don't get any help from others when I need them.	-1.57
	*27	I have no particular meaning or purpose for my life.	-1.66
	8	I don't have any memories of the past that were particularly happy.	-1.69
Type II	31	I don't realize time passes so quickly when I enjoy what.	1.86
	*22	I'm currently not particularly satisfied with myself.	1.59
	*9	I'm greatly influenced by others for deciding what to do.	1.57
	*1	I don't think that I look attractive.	1.29
	*25	Sometimes I feel like doing every day are trivial and unimportant things.	1.27
	16	I think it is important to have a new experiences that can motivate myself and my life.	1.10
	17	I love someone or I am loved by someone.	1.02
	4	I feel a warm feeling from many people.	-1.01
	34	I don't get any help from others when I need them.	-1.02
	*6	I tend to be recognized by others.	-1.05
	*19	I tend to have a pleasant influence on others.	-1.22
	10	I don't feel lonely at all.	-1.64
	*3	I like every aspect of my personality.	-2.17
	Type III	17	I love someone or I am loved by someone.
7		Happiness for me is not a grandiose thing, just a little joy from day to day.	1.51
16		I think it is important to have a new experiences that can motivate myself and my life.	1.48
*12		I often feel pleasure and joy.	1.18
14		I live happily with my parents.	1.16
31		I don't realize time passes so quickly when I enjoy what.	1.06
*5		I always think positively.	1.01
8		I don't have any memories of the past that were particularly happy.	-1.10
*15		I don't feel particularly healthy.	-1.12
*18		I'm not particularly optimistic about the future.	-1.16
*22		I'm currently not particularly satisfied with myself.	-1.35
*1		I don't think that I look attractive.	-1.45
21		I'm not pleasant when I'm with others.	-1.53
34		I don't get any help from others when I need them.	-1.64
24	I won't have much to laugh about.	-1.91	
Type IV	*29	I have a balanced appearance.	2.22
	17	I love someone or I am loved by someone.	1.73
	*14	I live happily with my parents.	1.51
	31	I don't realize time passes so quickly when I enjoy what.	1.43
	9	I'm greatly influenced by others for deciding what to do.	1.27
	7	Happiness for me is not a grandiose thing, just a little joy from day to day.	1.05
	8	I don't have any memories of the past that were particularly happy.	-1.21
	*30	I don't care much about others.	-1.29
	24	I won't have much to laugh about.	-1.30
	21	I'm not pleasant when I'm with others.	-1.37
	34	I don't get any help from others when I need them.	-1.40
	10	I don't feel lonely at all.	-1.41
	3	I like every aspect of my personality.	-1.48

(* indicates items, the difference of Z-score is more than ± 1.00 compared with other types)

이와 같이 개인적 성취를 통해 행복을 느끼고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 유형은 관계적 측면에서도 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자신 성격의 모든 면을 좋아하지 않고(#3, $z=-1.32$) 외롭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10, $z=-1.08$) 부모님과 화목하게 지내고(#14, $z=1.37$)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17, $z=1.39$)고 생각한다(Table 4).

따라서 제1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보람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는 자신의 모습에서 만족감을 얻으며, 일상의 일들을 마무리 하는 것 등으로 성취감을 느끼는 유형이다. 또한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는 진취적 자세와 더불어 스스로 주위에 인정받고 있음을 자각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긍정적 마인드의 소유자로 판단되어 진취적 자기 실현형으로 명명하였다.

3.2.2 제2유형: 고립적 몰입형

제1유형이 일상에서 느끼는 기쁨과 보람을 중시한다면 제2유형은 매일하는 일보다는(#25, $z=1.27$) 자신과 인생에 자극을 줄만한 새로운 경험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며(#16, $z=1.10$) 즐기고 몰입하는 편이다(#31, $z=1.86$) (Table 4). 이 유형에 속한 57명 대상자는 “즐거운 일을 하고 있으면 끝까지 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시간가는 줄 모르고 하루 종일 하고 있고, 해야 할 일이나 약속 시간을 잊을 정도로 통제가 잘 안돼요.”라고 하였다.

또한 제2유형의 특징은 삶에 대해 가장 부정적 정서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 특성에서도 다른 유형에 비해 용돈 액수에 만족하지 않거나 스스로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는 편이었다(Table 3). 대상자가 부정적 정서를 보이는 두 가지 측면은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이다. 자신에 대해서 특별히 만족스럽지도(#22, $z=1.59$)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1, $z=1.29$). 또한 자신의 성격을 좋아하지 않으며(#3, $z=-2.17$) 외로움을 호소한다(#10, $z=-1.64$), 한편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부정적으로 반응했던 진술문에 잘 나타나 있다. 모든 사람에게서 따뜻한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4, $z=-1.01$) 인정받는 편이 아니며(#6, $z=-1.05$)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유쾌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19, $z=-1.22$)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무슨 일을 결정할 때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다(#9, $z=1.57$).

이와 같이 제2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대체로 자신에

대해 불만, 자존감 결여 등 자기 부정적 요인을 내재하고 있음으로 현실부정의 성향이 강하게 도출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타인의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또는 아예 주변에의 관심과 관계를 잊고 싶어 한다. 따라서 주변의 즉흥적 자극에 노출될 경우 현실 부정이나 새로운 것에 지속적으로 몰입하게 되는 유형으로, 고립적 몰입형이라고 명명하였다.

3.2.3 제3유형: 낙관적 친화형

1유형, 3유형은 가족이나 주변사람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지를 중시하는 측면에서는 유사하나 1유형의 특징이 자기실현이라면 3유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자기애와 긍정적 정서가 강하다는 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3유형은 2유형과 매우 상반된 주관성을 나타낸다.

제3유형은 자기 자신에 대해 건강하고(#15, $z=-1.12$) 매력적으로 보이며(#1, $z=-1.45$) 만족스럽다는(#22, $z=-1.35$) 긍정적 평가를 한다. 또한 이 유형은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며(#17, $z=1.91$) 자주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고(#12, $z=1.18$) 웃을 일이 많으며(#24, $z=-1.91$)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5, $z=1.01$) 미래에 대해서도 매우 낙관적이다(#18, $z=-1.16$).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필요하면 언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34, $z=-1.64$)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즐겁고(#21, $z=-1.53$) 그러다 보면 시간가는 줄 모른다(#31, $z=1.06$)(Table 4).

이와 같이 제3유형은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더불어 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면서 일상을 즐기는 유형이다. 늘 대부분의 주변인들로부터 따뜻한 감정을 느끼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기고, 타인들이 그로인해 즐거워하는 모습에서도 편안함을 느낀다. 소소한 일상의 기쁨에 만족하고 대인관계에서도 포용적이고 원만한 자세를 견지하는 유형으로 판단되어 낙관적 친화형이라고 명명하였다.

3.2.4 제4유형: 자기중심적 관계 추구형

제4유형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 사회적 규범 등 외적 가치기준을 중요시한다. 따라서 이들은 균형 잡힌 외모를 가지고 있는 것을(#29, $z=2.22$) 가장 큰 행복 요건으로 생각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는 편이며(#30, $z=-1.29$) 일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다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라고 한다(#9, $z=1.27$).

정서적으로는 부모님과 화목하게 지내고(#14, $z=1.51$)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고(#17, $z=1.73$) 여기지만 외로워하고(#10, $z=-1.41$) 자신의 성격을 좋아하지도 않는다(#3, $z=-1.48$). 13번 대상자는 적극적으로 활발한 성격의 친구들이 부럽다고 하였다(Table 4).

이와 같이 제4유형에 속한 학생들은 스스로 친구가 많고, 균형 잡힌 외모에 만족해 하지만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부정하거나 타인들이 부러울 때가 있으며 그들이 의식되어 상당히 노력하기도 한다. 부모와의 화목한 관계 등의 보편적 기준가치 이면에 신경 쓰이는 다른 모순적 가치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엿보이기도 한다. 때문에 주변을 의식하고 항상 비교하면서 자신을 가꾸어가면서도 행복교감에 소극적이고 비개방적 유형이어서 자기중심적 관계 추구형이라고 명명하였다.

3.3 대상자의 행복유형에 따른 학과만족도 차이

대상자의 행복유형에 따른 학과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행복유형에 따라 학과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4.53$, $p=.006$). 사후 검정 결과 진취적 자기 실현형(1유형)이 고립적 몰입형(2유형)에 비해서 학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특히 학과만족도의 하위영역 중 관계만족($F=3.50$, $p=.021$)과 일반만족($F=8.72$,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진취적 자기 실현형(1유형)이 고립적 몰입형(2유형)에 비해서 관계만족과 일반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과만족도의 하위영역 중 교과만족($F=1.97$, $p=.128$), 학과인식만족($F=2.23$, $p=.093$)과 학교인식만족($F=1.30$, $p=.283$)은 행복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논의

긍정심리학의 관점에서 행복은 교육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으며,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스스로 즐거운 삶을 이끌어낼 수 있다[13]. 이에 본 연구는 Q 방법을 이용하여 간호대학생의 행복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고 학과만족도와와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유형에 따른 행복의 증진 방안, 더 나아가 간호전문직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되었다.

먼저 간호대학생의 행복 유형을 분석한 결과 ‘진취적 자기 실현형’, ‘고립적 몰입형’, ‘낙관적 친화형’, ‘자기중심적 관계 추구형’의 4개의 유형이 발견되었다.

진취적 자기 실현형의 행복의 핵심은 자기실현이다.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참여하고 주위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자각을 통해 행복을 생각한다. Cantor와 Sanderson(이경미, 2010에서 재인용)[20]은 목표를 향한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행복이 증진될 수 있다고 하였다. 김명소 등[16]의 연구에서도 자기가 목표한 바를 이루는 것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대학생들에게 행복감을 주는 요인으로 보고하였다. Lewis, Huebner, Malone과 Valois[22]가 높은 학업 성취를 보이는 학생일수록 보다 높은 행복을 지닌다고 한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즉 자아실현을 이룬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져 심리적으로 행복한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고립적 몰입형의 행복의 핵심은 새로운 것의 몰입이다. 이 유형의 학생들은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다 보니 자신의 일에는 소극적이 되고, 인간관계는 제한적으로 형성된다. 이로 인한 마음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단순한 쾌락 또는 자극적인 쾌락에 몰입한다. 박명철과 임용광[23]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대학생이 자신의

Table 5. Department Satisfaction according to Happiness Factors of Nursing Students

(N=64)

Variables	Type I ^a	Type II ^b	Type III ^c	Type IV ^d	F	p	Scheffe
	M±SD	M±SD	M±SD	M±SD			
Department Satisfaction	4.06±0.48	3.44±0.33	3.84±0.51	3.92±0.44	4.53	.006	a>b
Satisfaction with the Courses	4.00±0.43	3.55±0.47	3.80±0.56	3.76±0.59	1.97	.128	
Interpersonal Relation	3.83±0.81	2.93±0.77	3.56±0.75	3.30±0.67	3.50	.021	a>b
General Satisfaction	4.35±0.40	3.41±0.50	3.92±0.62	4.02±0.40	8.72	<.001	a>b
Department Perception	4.54±0.50	4.15±0.61	4.40±0.57	4.70±0.40	2.23	.093	
School Perception	3.60±0.86	3.09±0.57	3.50±0.73	3.62±0.71	1.30	.283	

가치와 활동역량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세실리아 쉐 등은 인터넷 중독비율과 삶의 질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개인적 삶에 대한 만족이 낮다는 인식을 할수록 인터넷 중독률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24]. 이런 몰입은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일시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는 없다.

또한 임창희[25]는 부정적 감정 성향이 강한 사람은 사회적 지지에 대한 욕구가 낮고 사회적 지지를 받으려는 노력도 덜하며,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에 대해서도 비판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고립적 몰입형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자아존중감을 강화시키고 인간관계 개선을 통하여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을 높이며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 정서의 균형을 유지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낙관적 친화형의 행복의 핵심은 즐거운 삶이다. 자신과 주변 상황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이며, 주변 사람에 대해 포용적인 태도를 나타냄과 더불어 원만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는 유형이다. Seligman 등[9]은 만족감, 행복감, 낙관성의 특성을 긍정적 상태로 분류하면서 행복감이 충분하고 낙관적인 사람은 자신만의 강점을 더 많이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기여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며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성취에도 기여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Diener[26]가 행복을 삶 전반에 대한 만족감과 일상생활의 경험에 대한 긍정적 정서로 정의한 것보다 맥을 같이 한다. 이 유형의 특징인 긍정적 정서와 낙관성은 비교적 안정적인 속성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6].

자기중심적 관계 추구형의 행복의 핵심은 관계의 안정이다. 이 유형에 속한 간호대생들 스스로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외적으로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을 중시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치기준이 자기중심적이어서 주변을 많이 의식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수동적 측면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황상민[27]은 한국인들은 집단 규범과 외부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자기’라는 존재를 그 자체로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즉 이 유형은 자기정체성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자신감이 부족한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김정숙[17]은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특성은 사회적인 현상이나 거시적인 문제에

무관심하며 사회 의식이 부재할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한다.

대학생 시기는 정체성을 발견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자신의 문제에만 골몰했던 것에서 다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공유된 정체성을 갖게 된다[28]. 따라서 자기를 인정하고 스스로의 삶에 대한 통제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가족과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과 진솔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러한 관계로부터 정서적 지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행복 유형에 따른 학과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제1유형 진취적 자기 실현형이 제2유형 고립적 몰입형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애[29]는 행복관련 연구 835개에 대한 메타분석에서 행복과 관련 요인들 간의 평균효과크기를 통해 자기실현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정적 정서, 부적 정서 순으로 행복감이 더 높았음을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을 보였다. 유아교육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황해익, 최혜진과 김병만[30]의 연구,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홍영미[31]에서도 각각 행복감이 학과만족 또는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진과 이재영[32]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전공학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학습에 대한 흥미상실로 인한 성적 하락, 학교로 부터의 소외감, 부적응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 개인의 잠재적 가능성 개발 기회의 박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대학생의 학과만족도는 이후의 직무 태도 및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강조한다. 더불어 함연숙 등[6]은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여, 행복이 즉각적인 성과 뿐 아니라 장기적인 성과에도 기여함을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학과만족도 중에서도 관계만족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립적 몰입형의 관계만족도 정도는 평균 2.93±0.77로 5점 만점에 중간 이하의 점수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행복한 사람은 안정적이고 질이 높은 인간관계를 맺음으로써 다양한 경로의 사회적 지지를 더 높게 경험하며[33], 심리적 안녕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직장에서는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고 직무만족이 높다고 한다[31]. 이는 타인의 지지가 개인의 신념을 통해 후속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31]. 따라서 고립적 몰입형의 학생들에게 지지적이고 관계적이며 소통하는 학습 환경 속에서 학과에 흥미를 갖도록 개인이 지니고 있는 잠재가능성을 인식, 탐색하고 개발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자기효

능감과 같은 긍정적인 내적요인과 자아존중감의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 정서를 바탕으로 학과만족도, 더 나아가 간호전문직관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행복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주관성을 유형화하고, 행복유형에 따라 학과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여 간호대학생들이 스스로 행복한 삶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육 및 상담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먼저 간호대학생이 행복에 대한 주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Q 요인분석을 한 결과 4가지 유형 및 그 특성을 발견하였다. 제1유형인 진취적 자기 실현형은 목표 성취를 통한 개인적 성장을 행복으로 인지하는 유형이다. 제2유형인 고립적 몰입형은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내재하고 있어 현실 고립적인 일에 몰입하는 유형이다. 제3유형인 낙관적 친화형은 자기애와 긍정적 정서를 바탕으로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상을 즐기는 유형이다. 제4유형인 자기중심적 관계 추구형은 주변을 의식하고 타인과 비교하고 영향을 받으면서 자신만의 가치기준을 만들어 가는 유형이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행복유형에 따른 학과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진취적 자기 실현형이 고립적 몰입형에 비해서 학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학과만족도의 하위영역 중 관계만족도와 일반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는 두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는 간호대학생의 행복 유형에 따라 방향성 있는 교육 및 상담을 계획할 수 있다. 둘째는 행복은 개인의 노력여하에 따라 획득될 수 있는 심리적인 작용이므로 교육이나 상담을 통해 긍정적 정서가 유지되고 습관화된다면 학과만족도 뿐만 아니라 간호 전문직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OECD,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6*, Paris: OECD Publishing, 2016.
DOI: http://dx.doi.org/10.1787/eco_surveys-kor-2016-en
- [2] G. Y. Jo, & H. S. Park, "Predictors of subjective happiness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2, no. 1, pp. 160-169, 2011.
DOI: <https://doi.org/10.5762/KAIS.2011.12.1.160>
- [3] H. S. Park, "Stress, yangsaeng and subjective happiness among female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0, no. 4, pp. 471-481, 2014.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4.20.4.471>
- [4] G. H. Kim, & K. H. Kim, "Factors related to happiness in first year wome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21, no. 2, pp. 149-157, 2012.
DOI: <https://doi.org/10.12934/jkpmhn.2012.21.2.149>
- [5] D. J. Kim, & J. S. Lee,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elf-efficacy on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0, no. 2, pp. 244-254, 2014.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4.20.2.244>
- [6] Y. S. Ham, H. S. Kim, I. S. Cho, & J. Y. Lim, "Affecting factors of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senior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7, no. 3, pp. 538-546, 2011.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1.17.3.536>
- [7] B. H. Son, Y. M. Kim, & I. G. Jun, "A study on nursing students' job-esteem, work values, and satisfaction of their major",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 20, no. 3, pp. 240-249, 2011.
DOI: <https://doi.org/10.5807/kjohn.2011.20.3.240>
- [8] D. Barron, E. West, & R. Reeves, "Tied to the job: Affective and relational components of nurse retention", *Journal of Health Services Research & Policy*, vol. 12, pp. 46-51, 2007.
DOI: <https://doi.org/10.1258/135581907780318419>
- [9] M. E. P. Seligman, T. A. Steen, N. Park, & C. Peterson, "Positive psychology progress empirical validation of interventions", *American Psychologist*, vol. 60, no. 5, pp. 410-421, 2005.
DOI: <https://doi.org/10.1037/0003-066X.60.5.410>
- [10] S. Lyubomirsky, *The how of happiness: A new approach to getting the life you want*, NY: Penguin Books, 2008.
- [11] S. Min, G. W. Yu, & H. S. Kim, "The effect of self leadership training program on hope and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The Proceedings of the Autumn Conference of the Korean Academic Associat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pp. 381-397, 2010.
- [12] G. Y. Jo, *The effects of 'Becoming Happy I' program on gratitude disposition, self-esteem, flow, and subjective happiness for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Daegu, 2011.
- [13] S. Joo,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on the concepts of happi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2011.
- [14] K. H. Jo, "Perception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toward happiness: A Q-methodological approach",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7, no. 2, pp. 178-189, 2011.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1.17.2.178>
- [15] K. H. Kim, & H. S. Ha,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 no. 1, pp. 7-20, 2000.

[16] M. S. Kim, H. W. Kim, K. H. Cha, J. Y. Im, & Y. S. Han, "Exploration of the structure of happy life and development of the happy life scale among Korean adult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8, no. 2, pp. 415-442, 2003.

[17] J. S. Kim, *The subjectivity on the happiness of Korea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2013.

[18] P. Hills, & M. Argyle, "The Oxford happiness questionnaire: A compact scale for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well-be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33, pp. 1073-1082, 2002.
DOI: [https://doi.org/10.1016/S0191-8869\(01\)00213-6](https://doi.org/10.1016/S0191-8869(01)00213-6)

[19] C. D. Ryff,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7, no. 6, pp. 1069-1081, 1989.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57.6.1069>

[20] K. M. Lee, "A study on differences in happiness of female high schoolers in terms of an internal or external locus of contr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Changwon, 2010.

[22] A. D. Lewis, E. S. Huebner, P. S. Malone, & R. F. Valois, "Life satisfaction and student engagement in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40, no. 3, pp. 249-262, 2010.
DOI: <https://doi.org/10.1007/s10964-010-9517-6>

[23] M. C. Park, & Y. K. Lim, "A study on the internet addiction affected by the level of self-esteem. *The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of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pp. 12-20, 2013.

[24] yonhapnews. (2014, December 21). The lower the quality of life, the more Internet addiction... 6% of the world population, from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4/12/20/0303000000AKR20141220006700091.HTML>

[25] C. H. Im, "The effect of negative affectivity on collective self-efficacy : A focus on the mediating role of personal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ol. 23, no. 1, pp. 75-100, 2008.

[26] E. Diener,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vol. 95, no. 3, pp. 542-575, 1984.
DOI: <https://doi.org/10.1037/0033-2909.95.3.542>

[27] S. M. Whang, *Korean's psychological code*, Seoul: Chusub, 2011.

[28] M. H. Yon, *Mature parents, competent teachers*, Seoul: Yangseowon Publishing Group, 2000.

[29] M. A. Kim, *A study of meta analysis on correlation of happin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2015.

[30] H. I. Hwang, H. J. Choi, & B. M. Kim, "Impact of happiness and optimism on satisfaction with the department among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 16, no. 6, pp. 405-434, 2012.

[31] K. I. Ho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employees' happiness, social support, self-efficacy,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eimyung University, Daegu, 2013.

[32] S. J. Park, & J. Y. Lee, "A study on satisfaction of major and department among college students majoring police science",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 18, no. 1, pp. 123-146, 2011.

[33] W. I. Yur, "Establishing the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value from happiness -A positive psychology perspective-", *Review of Industry and Management*, vol. 25, no. 1, pp. 161-178, 2012.

권혁미(Hyuk-Mi Kwon)

[정회원]



- 2015년 2월 : 한국교통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8년 1월 ~ 현재 : 한국교통대학교 직원

<관심분야>
인터넷 중독, 행복

한혜숙(Hye-Sook Han)

[정회원]



- 1984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2년 2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1984년 5월 ~ 현재 : 한국교통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간호교육, 재활간호